

「불교와 여성상」 밝힌 논문 화제

한국 불교사에 있어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은 얼마나 될까. 여성의 불교 참여에 대한 논문이 두 학자에 의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동국대 허홍식교수의 「중세의 의례와 여성의 역할」과 허정희씨(창원대 강사)의 「불교와 현대여성의 역할」이 그것.

고려시대 불사·제례서 적극활동

동국대 허홍식교수

창원대 허정희교수

오늘날엔 차별문화 극복 과제

허홍식교수는 지난달 29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역사민속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논문을 발표했으며, 허정희씨는 오는 11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질적 차이를 아끼지 않은 예가 자주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이는 "고려의 여성이 종교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정희씨는 "불교의 총체적 발달이 다양성과 유연성의 폭넓은 전개과정에 있다"



허정희교수



허홍식교수

허홍식교수의 논문은 그동안 여성의 지위가 가족 형태나 상속에 대한 연구 범위에서만 논의된 것을 벗어나 불교 의례(儀禮)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허교수는 "삼국시대에는 여성이 사회공동체나 국가 제례에도 중요한 역할을 보였고, 고려시대에 가족의 제례를 주관하는 축소된 경향이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비교하면 제례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놀라우리 만큼 강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이 불사(佛事)에 몰

고 전제하고, "소속적 차원에서 여성의 역할을 문화시키는 차별문화적 요소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불교의 여성 역할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유연성의 장점이 적용돼야만 개방되는 문화에 적응 가능하다는 것이 허씨의 주장.

허씨는 "부처님 시대에도 결코 차별은 없었고 여성문화와 남성문화의 구별이 있었을 때를"이라고 강조하고, "역할분담이 달리 나타나는 양상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탐욕·과소비가 공해 불러”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창립 심포지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적 시각에서 환경문제를 진단한 두 논문이 발표돼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사장·법륜)은 지난 2일 '환경위기시대의 불교사상'이란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동국대 철학과 김용정교수는 '생태윤리와 불교윤리'를,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 노용희교수는 '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불교의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김교수는 발표문에서 서구 과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지적하고, "오늘의 신과하문종이나 동양의 유기적 전체론적 패러다임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



◇ 지난 2일 불교방송 3층 강당에서 열린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창립 심포지엄

김용정 교수 인간중심 개발 탈피해야

「불교사상」 환경보호 열쇠 노용희 교수

나 아직도 환원주의적 또는 원자론적 인과적 결정론을 충분히 뒤엎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새로운 전일적 세계관(holistic worldview)으로서의 생태학적 세계관을 "모든 현상들이 근본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개인과 사회가 자연의 순환 과정에 깊이 관련돼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교수는 "진정한 자연보호와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탐욕과 과소비 문화에 몰든 현대인들을 자각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환경윤리학을 제시했다.

오늘날 환경윤리학이 안고 있는 세가지 과제는 △모든 생물의 생존권 문제 △미래 세대의 생존에 대한 책임 △인간

내리 확산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인연은 인류문명사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으로 서구중심의 문명에 있다고 지적하고, 서구와 동양의 논리체계를 비교하면서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불교의 과제를 열거했다.

노교수는 "불교적 사고(思考)가 개발과 환경보전의 동일을 위한 지혜의 보고"라고 전제, "개발과 보전이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풍양적 사고가 지닌 인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노교수는 "오늘날 생활양식의 전환이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기에 개인의 구체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까요

문 저는 남들이 들으면 부러워할만한 좋은 직장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도 많은 것 같고 스트레스도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일터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하성우)

답 직장내의 문제점이나 스트레스 요인은 모두 나의 공부재료입니다. 사람은 순탄하기만 한 환경에서라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름대로 역경에 부딪힐때 배우는 바가 있게 됩니다. 공부가 하는데 상대방이 공을 쳐 넘기거나 내가 치게되고 잘하는 계기도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문제점이란 결국은 나의 문제입니다. 상대의 잘못도 잘못이라니와 먼저 나의 잘못, 부족한 점을 살펴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지만 아니고 너는 어디까지나 나, 나는 나라든가, 요건 잘못되고 조건 잘못되고 하는 식으로 따진다면 어느 때 차원 높게

음의 전화가 통하지 않음리 없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서로 마음의 전화가 통하게 되어있다는 믿음으로 통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틀어놓지 않습니다. 마음의 통신, 물리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의 연결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능수험생 합격발원기도는 어떻게

문 저는 입시생을 둔 주부입니다. 대입 수능능력시험을 앞둔 처지라 매일 합격발원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도 경성이 모자라서 일까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박인영)

답 무엇을 해 달라고 빌면 그것은 벌써 타락신앙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여기 저기 외지고 싶겠지만 그렇더라도 타락에 기대는 한 공덕도 없을 뿐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강퍽하고 다니며 구걸하는 일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언제

지상상담

길은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도원 대령스님께 물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①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② 02-722-4162 팩스 ③ 02-737-0698

점프할 수 있겠습니까.

문 실사 나는 잘하는데 상대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나 나나 고만고만하게 만났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구나'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일상 속에서 나의 언행도 부드러워져 어느새 문제점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야 업보가 녹고 습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곧 좋은 일터를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대입시를 둔 자식이 평정만 부리는데

문 대학 입시가 코 앞에 다가오는데 제 자식 높은 공부는 않고 평정만 부리고 있습니다. 속상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고민이 큼니다. (대구시 북구 태전동·서용호)

답 먼저 자녀에 대한 애착을 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하시겠지만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도 틀림없는 불보살이요 부처님 성품을 타고 났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내 자녀도 불보살인데 오죽이나 잘 해 나가겠습니까. 다만 자녀들이 자신을 알지 못하거나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이래라 저래라 강제한다 해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마음으로 복돋아주고 일깨워 주고 에너지를 넣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스스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해야겠지요.

그럼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게도 마음의 전화가 있고 자녀에게도 마음의 전화가 있다. 부모 자식간이니 그 전화는 서로 가설되어 있고 내가 번호를 알고 있다. 그러나 마

구할라고 가르치셨던가요.

문 관세를 보살, 지장보살의 명호를 외우는데 관세보살은 내 마음 안의 법당에 있지 바깥 법당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찰을 찾아가 지극정심으로 예를 하는것은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이 하나되게 나를 닮는 과정이지 복을 빌려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합격발원기도를 한다고 할 때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하나되는 도리를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는 것이 '불게 해주십시오' 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워 시주금을 못낼때는

문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남과 같이 시주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늘상 마음에 걸리는데요, 무슨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임형순)

답 진정한 보시란 본래 내가 한다는 생각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보시를 들먹였다거나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한 것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옛날 암부재라는 임금이 많은 불사를 해 놓고 달마대사께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묻자 대사께서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사 남들처럼 사찰에 시주를 하지 못한다해도 마음으로 얼마든지 시주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아끼듯이 남의 생명을 아끼고, 내가 내 몸 아끼듯이 남의 몸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보시는 이뤄지는 것입니다. 돈 몇푼 내고 못내고를 걱정하지 마세요. 형편이 당는대로 하십시오.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이 풀릴때는 무주상 보시가 진짜 보시입니다.

다시찾은 원효 「금광명경소」

교원대 김상현교수 일본책 인용문서 뽑아 재구성

그간 잃어버린 것으로 알려진 「금광명경소(金光明經疏)」를 모아 재구성한 논문이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간행 <동양학 제24집>에서 한국교원대 김상현교수가 발표한 「집일금광명경소(輯逸金光明經疏)」란 논문이 바로 그것.

원효(617~689)의 90부(部)에 가까운 저서중 현존하는 것은 겨우 20여 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완본은 13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잔본 및 단편에

불과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김교수는 원효의 잃어버린 저서를 찾아내거나 단편적인 글을 모으는 일에 관심을 쏟은 결과, 지난해에는 「집일승만경원효소」를 발표할 수 있었고,

올해 「집일금광명경소」를 소개하게 됐다.

이 논문은 원효소(元曉疏)로부터 2백28회 1만2천여 자를 인용한 일본 원효(願曉, 835~871)의 「금광명최승왕경원

후(金光明最勝王經玄福)의 인용문을 뽑아 원효가 저본으로 삼았던 「팔관금광명경(八卷金光明經)」의 품(品)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김교수는 「금광명최승왕경원

후」에 인용된 분별삼신품(分別三身品)에 대한 원효의 소문(疏文)이 2천7백여 자나 되는 사실에 주목, 원효가 「금광명경의 삼신설(三身說)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교수의 이번 논문은 불교의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병품(除病品)에 관한 원효의 주석 등 새로운 자료와 원효의 불신론(佛身論) 이해에 도움을 주는 내용도 담고 있어 원효 교학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불교신문

2000만 불자의 공지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길 바랍니다

개혁의 성공만이 튼튼한 사회를 보장합니다



민주자유당불교신도회일동 민주자유당청년직능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 782-8378 (대) 783-9811 (교) 531-4